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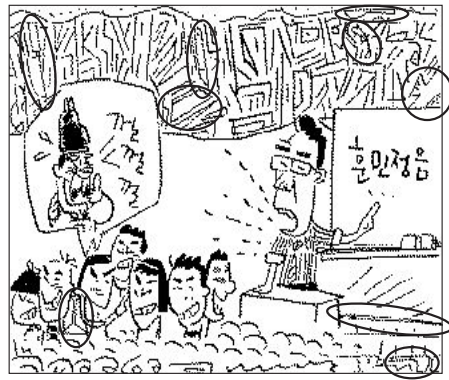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55 >



찾(아)보(세)요 다리미, 양주잔, A자, 못, 고추, 펜촉, 음표, 집자리

여자들의 속마음

- 작하고 돈없는 남자 - 불쌍하다
똑똑하고 돈없는 남자 - 재수없다
유식하고 돈없는 남자 - 짜증난다
애교많고 돈없는 남자 - 영양가 없다
겉소리고 돈없는 남자 - 멍청하다
재미있고 돈없는 남자 - 재미없다
주위에 여자가 많고 돈없는 남자 - 존재할 수 없다
집안 좋고 돈없는 남자 - 관심없다.



지나주 정담

양주잔, 담배파이프, 스폰, 조각칼, 대접, 바늘, 송사리, 부엌칼, 열대어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정현주 <합평군 합평읍> 심복남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월11일은 호남선 완공 93주년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호남선 철도는 호남 차별의 상징이었다.
36년만에 겨우 복선화가 끝나면서 '목포까지 굽벙이가 가아왔어도 더 빨리 왔을 세월'이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왔다.
단선일 때는 선로가 하나뿐인 탓에 연착 연발이 '발딱뚱이' 벌어졌다. 예컨대 상행과 하행이 겹칠 때면 완행열차 탄 승객들은 가격이 비싼 급행·특급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신형 객차 교체도 경부선에 비해 늦었다.
오죽했으면 눈물의 호남선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호남선은 지난 1914년 1월11일 전북 정읍과 광주 송정리를 잇는 철도 구간이 최종 완공됨으로써 대전~목포(252.5km)를 잇는 철도 노선이 호남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이어졌다. 한국 철도공사에 따르면 1910년 1월 대전~연산 구간 공사 착공한 지 4년여 만이다. 당시 열차는 증기 기관차에 평균 속도는 시속 40km였다.
이후 2003년 12월8일 마지막 단선 구간이었던 목포~임성 구간 7.3km의 복선화가 마무리 되면서 지난 1968년 시작된 복선화 공사가 무려 36년

만에 완료됐다.
호남선 철도부설이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 1896년, 프랑스 퍼브릴르회사가 부설을 건의하고 부설권을 요청했다. 대한제국은 그러나 1898년 6월 직접 호남선(경북·서울~목포) 건설에 나섰다. 따라서 호남선은 처음부터 한국인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다른 노선과 차별성을 가졌지만 자금 사정으로 부설권이 민간 업체에게 넘어갔다. 1904년 5월 호남철도 주식회사가 설립돼 1908년 목포~조치원까지 선로 측량을 마치는 등 선로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1909년 9월 12만9천여원을 주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부설권을 빼앗아 착공, 개통했다.
대중가요에도 등장, 호남인들과 애환을 같이 했던 호남선은 지난 2004년 고속전철이 개통되는 등 국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고 시속 300km에 이르는 KTX 열차도 호남선으로 들어오면 '폐쇄' 질주를 멈춘다. 사천천(蛇行川)처럼 구비치는 선로로 인해 80km로 달랠까 할 곳도 많다. 여전히 호남선은 낙후의 상징으로 지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선 완전개통을 2년 앞둔 1912년 1월 27일 목포역 전경. <한국철도공사 제공>

뉴스퀴즈

46. 2007년 정해(丁亥)년을 맞아 유통가에서는 동물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6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재복이 넘치는 이 동물의 해로, 평생 만나기 힘들다는 속설 때문에 유통업계 등에서는 이 동물을 내세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저출산 추세에서도 출산 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지상 중 가장 마지막 동물은 무엇일까요.
① 쥐 ② 소 ③ 호랑이 ④ 돼지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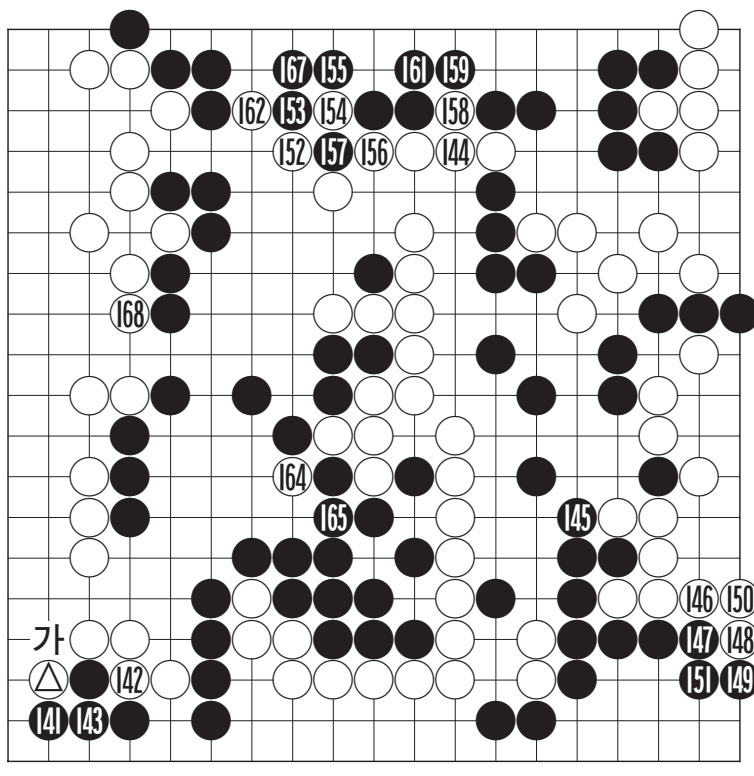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0일(음 1월 22일 甲戌)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백승리 선언 9보(141~168)
여성부 결승
白 김지는 5단 <해남군>
黑 김태현 5단 <목포시>

흑이 몇번의 찬스를 놓치고 백이 ㉔로 찢히게 되어서는 백 우세의 국면이 되었다.
흑이 이곳을 내리서고 찢히지는 것과 비교하면 142로 단수한 자체만으로도 백이 이득으로 이것이 끝내기 요령이다.
김지는 5단은 다시 146으로 내려서서 150까지를 해치운 다음 상변 152에 두어 노련하게 흑 집을 좁혀가고 있다.
요즘의 신진들은 예전의 고수들과 달리 끝내기과 계산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어려서부터 흑득한 단련을 받아 그만큼 기분이 탄탄하다.
백 154로 찢러놓고 156으로 막은 것도 노련한 수법이다. 흑은 이 패를 버릴 수 없으므로 161로 물러서고 말았는데 이 수가 또 3집은 손해를 봤다. 이 수로는 당연히 162에 이어야 했다.
김태현 5단이 초반에는 대세력을 쌓으며 스케일이 큰 작전을 펼쳤으나 정밀함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끝내기에서는 김지는 5단에게 계속 밀리고 있다.
백 168은 '이겼습니다'는 선언과도 같다. 크기로 보면 좌하구 '가'의 곳이 반상최대이나 이것으로 백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뜻이다. 160~154의 곳.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최철한, 원익배 준결승 진출
최철한 9단이 9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익배 십단전 8강전에서 김주호 7단을 151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흑을 쫓 최 9단은 중반전투에서 백이 중앙의 백 여섯집을 소홀히 한 틈을 타 중앙 하변에서 백대마를 대거 포획, 승부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3차례 준우승에 그쳤던 최 9단은 이날 승리로 무관 탈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 9단은 준결승전에서 광주 출신 백홍식 5단과 격돌한다. 원익배 총상금 규모는 2억8천만원,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English (ended up ~ 결국에는 ~이 되다), 2. Japanese (西暦2000年は, 閏年(うるうどし)でした), 3. Chinese (要是你有很多钱, 你想做什么?), 4. Korean (雲行雨施 (운행우시) 구름은, 갈 행, 비 우, 베풀 시).